

인류 운명을 가른 설계자 <총, 균, 쇠> 인종주의적 편견을 넘어, 지리적 결정론으로 본 문명 발전의 역사

I

프로그램 개요

□ 프로그램 내용

왜 어떤 민족은 지배하고, 어떤 민족은 지배당했는가?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'환경'과 '지리'라는 해답을 내놓습니다. 본 강의는 고전 『총, 균, 쇠』를 텍스트 삼아, 인류 문명의 불평등이 시작된 기원을 원서의 논증 순서(지리→농업·가축화→총·균·쇠→문자·국가→대륙별 비교)를 따라 추적하고, 현대 경제·기술 격차의 근본 원인을 고찰합니다.

□ 프로그램 상세 개요

- ▷ 주제 : 지리적 요건이 인류 문명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에 미친 영향 분석
- ▷ 대상 : 인문 고전 완독을 꿈꾸는 독자, 역사와 경제의 인과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 싶은 학습자
- ▷ 내용 : 지리·농업의 우연에서 시작해 무기(총)·질병(균)·금속(쇠), 문자와 국가라는 결과물까지 다룸
- ▷ 주제도서 : 『총, 균, 쇠』(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), 『어제까지의 세계』(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)

	구분	소주제	내용
1회	강의 및 토론	알리의 질문: 불평등의 기원	- '왜 백인이 화물(cargo)을 더 많이 가졌는가?' 뉴기니 정치인 알리의 질문 - "역사가 다르게 전개된 것은 사람들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____적 차이 때문" - 유발 하라리 『사피엔스』의 '인지혁명' vs 다이아몬드의 '환경결정론' 비교
2회	강의 및 토론	농업의 기원: 인간은 왜 사냥을 그만두었나	- 농업은 발명이 아니라 떠밀림 - 수렵채집이 더 여유로운 삶이었다는 역설 - 농업의 시작은 축복이 아니라 ____이었다 - 다큐 <코스모스>의 '인구와 잉여' & 잉여생산과 경제학의 기원
3회	강의 및 토론	작물화·가축화의 불평등: 안나 카레니나 법칙	- 가축화 성공의 6가지 조건(먹성·성장속도·번식·성격·겉먹는 습성·위계) - 폴리네시아 자연실험 - 마오리족과 채텀제도 모리오리족의 갈린 운명 - 몽골 유목문화와 칭기즈칸 - 가축이 곧 군사력이 된 사례
4회	강의 및 토론	대륙의 축(Axis): 지리가 정한 전파 속도	- 유라시아는 동서로, 아메리카·아프리카는 남북으로 - 방향 하나가 문명의 전파 속도를 가름 - 실크로드는 '동서로 뚫린 길'이었기에 가능했던 무역로 - 세계지도 90도 돌려보기 - 메르카토르 도법의 착시 체험

5회	강의 및 토론	[총] 카하마르카의 비극: 168명이 8만 대군을 이기다	- 1532년 피사로의 168명이 잉카 황제 아타왈파의 8만 병력을 몰살시킨 30분 - 강철 갑옷·기병·화약이라는 '기술'과 문자로 축적된 '정보'의 결합 - 영화 <미션>(1986)을 통해 보는 문명의 잔혹함
6회	강의 및 토론	[군] 보이지 않는 정복자: 가축이 준 저주와 축복	- 아메리카 원주민 90~95% 사망 - 그 원인은? - 천연두·홍역·독감 등 주요 전염병은 대부분 가축(소·돼지·오리)에서 유래 - 코로나19 팬데믹과의 비교, 알베르 카뮈 『페스트』
7회	강의 및 토론	[쇠] 금속과 권력: 청동기에서 철기로	- 청동기(BC 3300 메소포타미아)→철기(BC 1200 히타이트), 야금술과 전문 계급의 탄생 - 금속 도구 → 농업 생산성 증가 → 잉여식량 → 비농업 인구 부양 → 중앙집권 국가 - 셰익스피어 『베니스의 상인』과의 연관성
8회	강의 및 토론	문자의 발명: 정보의 독점	- 잉카에는 없었고 스페인에는 있었다 - 이 격차가 만든 정복 서사 - 문자는 소수의 독자적 발명(수메르·이집트·중국) 이후 대부분 전파·모방으로 확산 - 세종대왕의 훈민정음(1443) - 조선은 어떻게 독자 문자를 만들 수 있었나
9회	강의 및 토론	사회의 진화: 밴드에서 국가로	- 인구 증가에 따라 밴드→부족→추장사회→국가로 진화, 대가는 평등의 상실과 폭력의 독점 - 국가 탄생의 조건: 잉여식량 + 관료제 + 이를 정당화할 종교·이데올로기 - 토마스 홉스 『리바이어던』, 드라마 <킹덤> 속 조선 관료제
10회	강의 및 토론	왜 중국은 하나이고 유럽은 여러인가	- 지리적으로 유리한 중국이 왜 근대에는 유럽에 뒤처졌는가 - 통일 중국(단일 결정·단일 실패) vs 분열 유럽(경쟁·다수 시도) - 청나라의 강건성세 알아보기
11회	[워크숍] 대륙별 총군쇠 아프리카·오세아니아·아메리카 비교		- 3개 조 발표+교차토론 - 책에서 가장 극적인 대륙별 사례를 직접 다루는 참여형 회차 - 아프리카 조 : 반투족의 대확장(농경+철기)과 피그마·코이산족 이주사 - 오세아니아 조 : 호주 원주민이 농업을 갖지 못한 생태적 이유 - 아메리카 조 : 마야·아즈텍·잉카 vs 북미 원주민 - 같은 대륙 안의 격차
12회	[후속 모임] 21세기의 총·군·쇠는 무엇인가		- 총(기술·군사 패권-반도체/AI/드론), 군(기후위기·신종 전염병), 쇠(희토류·리튬 공급망)의 진화 - 반도체 패권 경쟁, 코로나19,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무기화 - 21세기의 총, 군, 쇠를 한마디씩 정의해 본다면? (릴레이 발언)